

# 칠레 10월 경제 동향(종합)

작성자주 칠레 대사관    작성일2022-10-28

## 1. 경제성장률 및 전망치

- UN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(ECLAC)이 10월 발표한 역내 경제 전망치에 따르면, 對중국 수출의존도(전체 약40%)가 높은 칠레 경제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 영향을 받아 2023년 마이너스 성장(-0.9%)을 보일 것으로 예상함.
-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심화 및 인플레이션, 불확실성 및 재정부담 증가로 2022년과 2023년 역내 성장 전망은 3.2%, 1.4%에 머물 것으로 전망
-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칠레 경제는 국내외 정치 및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, 저축 및 투자감소, 기대심리 위축 등 여러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, 장기적인 역동성 회복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함.

## 2. 통화정책금리(TPM)

- 칠레중앙은행 이사회(Consejo de Banco Central)는 10월 12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칠레 통화정책금리(TPM, Tasa de Política Monetaria)를 11.25%로 0.5%p 인상함.
- 이번 인상은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해서 결정된 것으로, 1999년 신흥국 경제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금번 표결에서는 이사회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
- 한편, 9월부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며, 이후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경우 단계적으로 통화정책금리를 인하해 나갈 예정

## 3. 환율

- 9월 30일 칠레 중앙은행의 예외적 외환시장 개입 종료 발표 이후, 페소화 가치 약세가 지속됨.
- 이후 9월 27일 환율(중앙은행 기준환율)은 달러당 965.18페소에서 987.07페소로 상승, 이는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이후 최고 환율로, 9월 30일 달러당 966페소로 9월 마감하였으며 10월 18일 달러당 967페소 기록

- 한편 구리가격 상승에 따른 환율 조정이 있었으나, 시장에서는 페소화 가치 하락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악화 등의 요인으로 페소가치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함.

#### 4. 외환보유고

- 외환보유고는 2021년 550억 불(역사상 최고치)을 기록한 이후,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2022년 8월 414억 불, 9월에는 377억 불까지 감소하였으며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였으나,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외환보유고 회복에도 어려움이 있음.

#### 5. 물가

- 칠레 통계청(INE)은 10월 7일, 9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(IPC)는 전년 동월 대비 +13.7%, 연초대비 +10.8%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으며 전월 기준으로는 0.9% 상승하여, 상승세는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.
- 주요 품목별로 보면, 연간 물가상승률 기준 △ 식품·음료 +21.9%, △식당·호텔 18.1%, △운송 +24.2%, △취발유 41.1%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전체적인 물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
- 반면, △항공운임, △여행상품, △보건, △교통비 등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, 상승세를 상쇄

#### 6. 실업률(고용동향)

- 칠레 통계청(INE)에 따르면, 2022년 6~8월 칠레 실업률은 전년 동기간 대비 노동가능인구가 6.5% 증가한 덕분에 0.6%포인트 감소하여 7.9%를 기록함.
- 성별로 보면, 남성의 노동가능인구가 4.1% 증가해 작년 동기간 대비 실업률은 0.8%포인트 감소하여 7.7%를 기록, 여성의 경우 노동가능인구가 9.8% 증가해 실업률은 0.5%포인트 감소하여 8.2%로 집계
-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7.2% 증가했으며, 산업별 증감 분야는 광업(32.1%), 제조업(8.1%), 상업(4.1%) 순임. 반면, 취업자가 감소한 분야는 전기공급(-14.0%), 공공행정(-0.9%), 교통(-0.1%) 순임.
- 한편 고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이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건설 투자 저하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1년 간 실업률이 7~8%대를 유지 중이나, 정부는 실업률이 한자리로 지속 유지 후 금년 말부터 점차 회복할 것으로 예측

#### 7. 정부 부채

○ 칠레 중앙은행(BC)에 따르면, 2022년 상반기 정부 부채는 993억 1천 4백만 달러로, 전체 GDP의 38.7%를 차지함.

- 팬데믹 발발 이후 정부의 사회적 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칠레는 중남미에서 콜롬비아, 브라질과 함께 세입보다 지출이 더 컸으나, 비교적 큰 경제규모 덕분에 역내 GDP 대비 정부부채가 차지 하는 비율이 낮은 국가 3위를 기록(과테말라 30.6%, 페루 34.4% 순, IMF 2021)

---